

# 학력수준 급추락 ... 학생 떠나게 하는 광주교육

### 주경남 시의원 지적 ... 기초학력 미달비율 급등 전국 12위 중학생 상위권 학생 타지역 고교진학률 4년새 배 켜

장귀국 교육감 체제 광주 교육행정이 언제 어떤 성과를 올릴지 지역 학력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광주시의회 주경남(서구 4) 의원은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 교육감 취임 이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학력수준 하락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기초미달

비율에서 광주는 2011년 전국 1위(낮은 순)였지만 ▲2012년 12위 ▲2013년 10위 ▲2014년 10위 ▲지난해 12위를 기록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11월 취임해 2012년부터 그의 교육행정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 학생들의 타 시·도 고교입학 사례도 ▲2011년

119명에서 ▲2012년 194명 ▲2013년 184명 ▲2014년 230명 ▲지난해 241명으로 4년새 배 이상 늘었다. 주 의원은 광주 중학생·학부모 5명 중 1명이 다른 지역 고교 진학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들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4년 12월 폴인사이트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20.2%, 학부모 19.3%는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하고(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생 2000명, 학부모 2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였다. 올해 서울대 입학자의 시도별 합격현황에서도 광주는 9위를 기록

했다. 주 의원은 “일선 고교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홍보하는 대입현황 자료를 취합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교육청은 내용이 없는 ‘강통자료’를 제출했다”며 “부실한 자료제출의 최종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수준별 수능성적 결과 분석에 따르면 광주 표준점수와 등급별 비율 등이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웃돈다”며 “학생들의 학력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반박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수완·신창지구 신도시 과밀학급에 돌봄교실 부족

### 교육서비스 질 낮아 김민중 시의원 지적

과밀학급에 돌봄교실 부족 등 광주시 교육청의 질 낮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학생과 교사들은 콩나물 교실에, 학부모들은 자녀 보육 애로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책은 곁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민중(광산 4)의원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수완, 신창 등 광산지역 초등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광산구가 24.9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 공백화(空洞化)가 심화한 동구가 20.4명으로 가장 적다. 광주지역 평균은 23.6명이다. 반

면, 광산구 수완, 신창 등 신(新)택지개발 지역의 과밀학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실초, 수완초는 학급 당 34.4명, 신창초 31.2명, 봉산초 30.7명, 신창초 30.2명 등 30명이 넘는 곳만도 5곳에 이르고 있다. 고실초 등은 평균 학생 수와 비교해도 50% 가량이 많은 셈이다.

이들 상당수 학교는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심지어 도서실을 없애고 일반 교실로 전환했다.

김 의원은 “광산지역 콩나물 교실은 시 교육청의 졸속행정에 주된 이유가 있다”면서 “신도시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유발됨을 일괄 산정해 학생수용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돌봄교실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수만도 1200명을 넘고 있다”면서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위한 돌봄교실 문제점도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디자인박람회 성공 개최 중과 문화·예술교류 구축 조직위, 한중문화우호협회 협약

전남 친환경디자인의 산업화,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친환경디자인조직위원회는 24일 “최근 (사)한중문화우호협회, 호남대학교 공작아카데미와 친환경디자인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한중 문화·예술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 지원뿐만 아니라 한중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기환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박상철 호남대 부총장, 장석주 호남대 공작아카데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문화·예술 전라사업 정보 교류 및 상호 홍보 ▲친환경디자인산업화를 위한 공동 추진사업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망 상호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한·중 민간 교류 프로그램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조직위는 앞으로 전남의 우수 문화·예술 자산을 중국 대륙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국 귀주성, 청해성, 흑룡강성의 문화 관광대사와 해외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취환 협회장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방침이다. 한중문화우호협회는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은 이후 ‘한중 문화축제’, ‘한마음, 한뜻, 청소년 서포터즈 한중교류’, ‘평화의 소리, 한중연 음악회’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 소재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chadol@



탱고춤 추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셀 여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키르치네르 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댄서들과 탱고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수영대회 선수촌 ‘계림8구역 아파트’ 사용 무산

### 재개발조합, 총회서 사용 협약 부결 ... 광주시 대책 고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정 선수촌 2곳 중 메인인 계림8구역 조합아파트 사용이 어렵게 됐다 때문이다. 광주시는 대회를 치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책마련에 이례적 고심이 커졌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총회를 열어 선수촌 협약을 부결시켰다. 계림 8구역은 2천660가구로 송정주공 1천660가구와 함께 핵심 선수촌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선수촌 사용료로 이

주비, 사업비, 중도금 이자 등으로 26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애초 공모 전제조건에 전혀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고려중인 사용료는 16억원 대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계림 8구역 사용이 무산됨에 따라 선수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수권(웹피인)대회와 일반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스를 분리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선수촌은 선수와 임원, 취재진 등 6천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송정 주공과 각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과는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계림8구역은 건설 시공사 참여과정부터, 조합 관계자의 뇌물수수 의혹에 따른 경찰수사 진행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수촌 제공을 위한 응모까지 한 상황에서 수수료 문제로 협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수촌으로 제공하겠다고 신청을 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않겠다고 하니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중남미계척단 1400만달러 수출 MOU

### 자동차부품 생산 등 지역 중기 8개사 참여

광주시 시장개척단이 중남미 지역에서 1400만 달러 수출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파라과이 아순시온, 브라질 상파울루 등 중남미 3개 지역 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수출MOU 1400만불과 수출상당 3123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주)는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 5대 그룹인 보가린그룹의 자회사인 Plus Car 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중남미가 새로운 수출 전략시장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실질적인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르헨티나에서 Feas Electronica S.A社와 70만 달러 MOU를 맺었다. 복합 PP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팬케미칼도 아르헨티나에서 CAUPUR S.A社와 450만 달러, 파라과이에서는 VISCOUNT S.A社와 500만 달러 건적서와 샘플 테스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파리네제이는 브라질에서 ANVISA(브라질 의료보건인증) 획득 후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주)원솔루션, 에이치디티(주)는 중남미 지역의 해외규격 인증 절차를 거쳐 수출하기로 협상하는 등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중남미가 새로운 수출 전략시장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실질적인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정식-남도소리 한자리서 즐긴다

### 광주시 ‘어울림 장’ 운영

광주시는 한정식과 남도소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남도의 맛과 소리의 어울림 장’을 28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남도의 맛과 소리의 어울림 장’은 맛으로 즐기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문화공간 창출을 통해 예방 남도의 전통음식과 소리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악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시가 최근 지정된 ‘1등 맛집’으로, ▲자연꽃, 아리랑하우스(동구) ▲송학, 금다연, 무등한정식(서구) ▲귀향정(북구) 등 한정식당 6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공연 운영은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광주시지회(지회장 최상진)가 맡는다. 문의 한국국악협회 광주지회 062-524-83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팬션  
매매

##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후 조정가

# H. 010-3119-6952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